

# 제12회 유심작품상 수상작 발표

신달자 시인 · 윤금초 시조시인 · 장영우 평론가 수상

## 냇달 또는 수월관음도

윤금초

- #1. 옥판선지 속 빛 같은 문기文氣 어린 공중 거기 해거름 냇달 한 채 양각으로 돌아 있다. 허공은 무젓은 화적, 숨결소리 들려온다.
- #2. 이따금 비늘구름 미점산수水點山水 그려놓고 꽃잠 깎박 들었다가 한껏 부풀 구름 일가一家 빛바랜 수월관음도가 저 달 위에 베일린다.
- #3. 목화구름 반쯤 비긴 하늘 가넉 벗겨나 내고 소리 먼저 길을 트는 금시조가 나는 건지, 때로는 십이파필十二破筆\* 국고 항적운이 번저간다.
- #4. 앙갓길 하다 말고 일물 또한 멈춰거리는 만 리 밖 적막을 홀는 안항雁行의 그림자들 화첩 속 일흔 날 이생이 꿈결엔 듯 머물다.

\* 동양화에서, 붓끝이 열두 갈래로 갈라지게 하여 그리는 필법.



신달자 시인 윤금초 시조시인 장영우 평론가

제12회 유심작품상에 시 부문에 신달자 시인의 '종소리'가, 시조 부문에 윤금초 시조시인의 '냇달 또는 수월관음도'가, 평론 부문에 장영우 동국대 교수의 '불교적 문화관의 가능성'이 각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신달자 시인의 '종소리'는 시인의 지적 탐색의 특징과 장점이 대표적으로 잘 드러나 있는 시로 범상치 않은 상상력의 깊이와 개성적인 이미지 구사의 참신성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금초 시조시인의 '냇달 또는 수월관음도'는 상징적 의미를 표상하는 자연의 비유를 그림의 중심에 놓음으로써 초인간적인 자연력과 체험된 인식들이 결합해 미학적 경향으로 승화되고 있다는 찬사를 받았다.

장영우 동국대 교수의 '불교문화관의 가능성'은 벽관의 문화관과 연기를 매개로 하여 회광반조(回光返照)의 시각까지 나아가 정찬의 소설 '숨겨진 존재'와

심사위원 이근배 시인 등 8명

8월 만해축전 만해마을서 시상

박완서의 소설 '환각의 나비'를 치밀하게 분석해 그만이 지닌 독자적 작품 해석을 보여준 뛰어난 비평가라고 평가 받았다. 또한 장 교수는 2007년에 간행된 비평집 <거울과 벽>에서는 정찬의 '베니스에서 죽음'에서부터 김동리의 '등신불'을 거쳐 조오현의 '아득한 성자'까지 불교적 시각을 원용하여 독자적 비평을 가한 바 있다.

심사위원으로는 시 이근배 이가림 권영민, 시조에 김재현 유자효 홍성관, 평론에 최동호 방민호 씨 등이 참여했다. 상금은 각 부문 2천만원이며 시상은 8월 만해축전 기간 중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열린다.

정혜숙 기자

# 법문부터 사찰요리까지 TV로 공부해요

## BBS TV 개편프로그램 인기

지난 봄 BBS TV는 공부하는 불자, 실행하는 불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편성해 1순위로 두며 파격적인 개편 단행했다. 이는 BBS TV가 불교방송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겠다는 확고한 취지를 실현한 것으로 법문, 법회, 사찰요리 경전공부 등의 프로그램이 시청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주목된다. 그렇다면 불자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지광 스님의 법고대동'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문과 삶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스님에게 질의 응답하는 형태의 프로그램이다. 지광 스님의 명쾌한 전문적설을 통해 불자들의 고민을 희망으로 바꾸어주며 마음치유의 시간을 갖는다. BBS TV는 "일반적으로 전하는 기존의 법문에서 탈피해 불자들의 고민을 직접 듣고 해법을 제시해준다는 측면에서 시청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설명한다. 월~금 오전 7시 30분, 오후 3시·9시 방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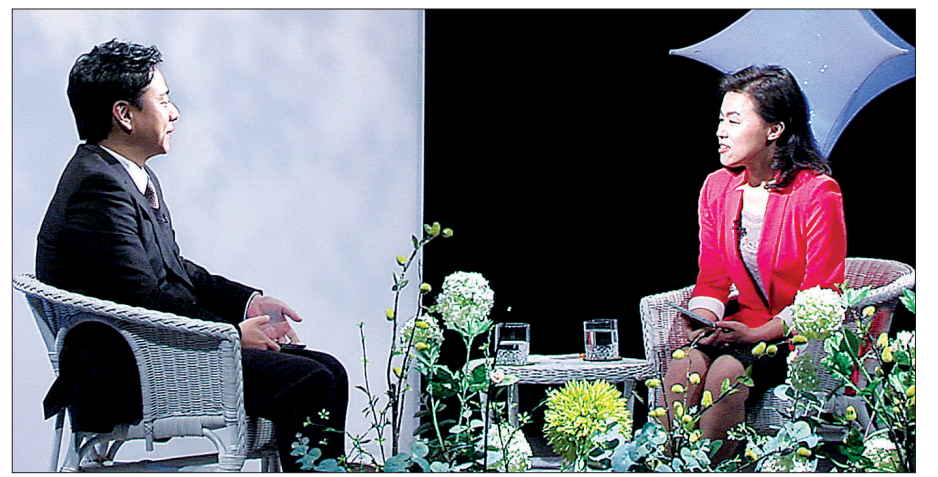
'해국 스님의 화엄이야기'는 해국 스님(중주 석종사 금봉선원장)이 부산 황령산 흥제사에서 5년 동안 매일 초하루 법회 때 불자들을 대상으로 <화엄경>을 알기 쉽게 강의한 법문이다. BBS TV는 "해국 스님은 '참 나는 누구인가? 내가 내 마음의 소를 찾아 나선 아름다운 목동이 되어 봅시다'라는 말씀으로 대중들에게 법을 전해주셨다. 참선의 깊이와 어우러진 스님의 감로수 같은 법문이 시청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총 60편으로 제작되어, 현재 주 5일 방송되고 있다"고 전했다. 월~금 오전 2시·9시 30분, 오후 2시·8시 방송.

'경전의 숲을 거닐다'는 불교 초기경전인 '5부 니까야'를 이야기형식의 낭독을 통해 마치 소설을 읽는 것처럼 편안하게 만나는 시간이다. 이를 통해 2천6백 년 전, 부처님과 제자들의 삶과 수행, 전법의 모습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으며, 부처님께서 무엇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셨는지, 부처님은 어떤 모습으로 열반에 드셨는지, 불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등 불교에서 알아야 할 필수 교리를 쉽고 재밌게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시청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통해 불자들의 성향이 변화되고 있음을 감지하고 있다는 BBS TV는 "팔리어 경전을 통해 부처님의 설법을 전해준다는 측면에서

'해국 스님의 화엄이야기' '경전의 숲을 거닐다' 등 불자 시청자 만족도 높아

'경전의 숲을 거닐다'에 대한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겁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며 논리적으로 전개되어 있는 초기불교에 대해 불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송은 월~금요일 오전 4시·11시, 오후 11시.

'테마가 있는 사찰음식' 역시 매주 다른 테마로 다양하게 만나는 사찰음식을 만날 수 있는 코너다. 스님들의 수행을 위한 음식이라는 점에서 사찰 음식은 지나치게 맞닿았 것이라는 편견을 갖게 되지만, 응용법에 따라 근사한 요리가 될 수 있다. 사찰음식 대중화에 앞장서온 홍승 스님과 함께 새롭게 변신시킨 레시피들을 소개한다. 화요



북칼럼니스트 이미령 씨가 진행하는 '경전의 숲을 거닐다'는 불교 초기경전인 '5부 니까야'를 이야기형식의 낭독을 통해 마치 소설을 읽는 것처럼 편안하게 시청자들을 찾아가고 있다.



홍승 스님이 진행하는 '테마가 있는 사찰음식'은 매주 다른 테마의 사찰음식을 만날 수 있다.

일 오후 12시 30분·4시 30분 방송.

박상필 불교방송편성제작국장은 "훌륭한 법사들이 전하는 방송들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그래서 불교를 핵심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는 장기적 진행자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 앞으로 전법과 포교를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현장의 소리를 담

아낼 수 있는 다큐멘터리도 꾸준히 제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BBS TV는 Sky Life 410번, SK Btv 556번, 올레KT 232번, LG유플러스 186번, CJ헬로비전 707번, 티브로드 206번, 현대HCN 616번, C&M 707번 그 외 지역 디지털 케이블 TV 등에서 시청할 수 있다. 정혜숙 기자 bwjsh@hyunbul.com

## 한국작가회의 '문제작으로 읽는 한국문학'

신경림·은희경 등 참여작가로 '어울림 마당' 펼쳐

한국작가회의에서는 '문제작으로 읽는 한국문학' 강좌를 마련했다. 한국현대문학사의 문제적인 작품들을 선정, 독자와 작가가 서로 어울리는 이야기마당으로 구성되는 이 강좌는 6월 13일~8월 1일 매주 금요일 오후 6시 30분~8시 대하로 마로니에 공원 예술가의집 좋은공연안내소에서 진행된다.

총 8강으로 구성된 제1기 작품으로는 △<농무>(신경림, 1974) △<새의 선물>(은희경, 1995) △<사평역에서>(곽재구, 1983) △<조동관 약전>(성석제, 1997) △<만국의 노동자여>(백무산, 1988) △<피어라 수선화>(공선옥, 1994) △<접시꽃 당신>(도중

환, 1986) △<무기의 그늘>(황석영, 1985)이 선정되었다. 강의에는 작품의 해당 작가들이 직접 참여하며 이명원, 서영인 등의 문학평론가들이 진행과 해설을 맡는다.

한편, 10월 17일부터 개강하는 제2기 문제작들은 △<내일을 여는 집>(방현석, 1991) △<나는 이 세상에 없는 계절이다>(김경주, 2006)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공지영, 1993)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함민복, 1996) △<밤은 노래한다>(김연수, 2008) △<섬진강>(김용택, 1985) △<지상에 슬가라>(하근) (현기영, 1999) △<문의마을에 가서>(은희, 1974)가 선정됐다. 정혜숙 기자

## 만만한 뉴스 작가 '붓다와 썸타요' 전

6월 16일부터 동국대 중앙도서관서

불교카툰전 '붓다와 썸타요전(展)'이 6월 16일~27일 동국대 중앙도서관 1층 홀에서 열린다. '젊은 그대 함께 하리라'라는 부제가 붙은 이 전시에는 불교카툰신문 '만만한 뉴스'의 여러(지찬 스님), 배중훈, 김동범, 양경수 작가가 참여 동국대생들에게 불교 카툰의 매력을 선사할 예정이다.

전시 타이틀인 '붓다와 썸타요'는 요즘 한참 유행어인 '썸타다'라는 용어를 활용한 것으로 부처님의 말씀에 설레고, 붓다의 삶과 가까워지자는 의미를 담았다. 만만한 뉴스 발행인 지찬 스님은 "동국대 일산병원 전시에서 이어지는 릴레이 카툰전



김동범 작가의 '신붓다'

으로 지성이 살아 숨 쉬는 도서관을 테마로 한 카툰 작품과 젊은 청춘들에게 어필하는 유쾌한 작품, 붓다와 커피를 매치한 붓다 카페, 붓다에 대한 새로운 해석 등의 작품이 선보일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010-6276-8620 정혜숙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신간! 바로보인 전문염송 제25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인 전문염송, 전 30권중 25권 출간! 운문, 장경, 경청선사, 부 상좌의 공안이 실려 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완전한 불공예식법**

불공예식법이란, 우러려 공경을 다해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으로부터 불보살님들의 가피를 구하는 예법 등을 총칭한다. 이러한 귀중한 예법들이 흠족한 우리말본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중략) 50여 년 전 대구 보현사 시절부터 준비했던 원고를 정리하여 오늘에야 출간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다.

- 대원 문재현 선사 서문 중에서

**이 시대에 맞는 석문의범**

www.zenparadise.com 참조 ☎ 031-534-3373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한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 열과 손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이목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분: 가루 자색죽염 125g 40,000원, 가루 자색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색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색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색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분: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색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색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새로운 "책"이 나왔습니다! 스스로 물어 알게됩니다**

**天易六氣經 공물**

궁금하면 물어보라

◆ 천역육기경은 우주삼원에서 받았습니다!  
◆ 이 세상에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 답답한 삶의 돌파구!

운기·사업·소원·결혼·매매·대인·실물·가출인·출산·소송·여행·취직·시험·이사·질병·지능(직업)

이들을 알고자 하시면 육기주를 두 번 굴리세요. 문제에 답이 풀립니다! 누구나 쉽게 공물할 수 있습니다.

**"책" 공물은 영원한 동반서!!!**

주문처: 1588-5654, 010-3743-9943  
정가 10만원 / 계좌: 농협 195-02-157774 박규화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며, 주문시 즉시 배송하여 드립니다.